



순천만을 찾은 겨울 진객 흑두루미들. 순천만이 역대 최대 개체수의 흑두루미들이 날아오면서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 국내 유일 흑두루미 월동지 자리매김

“마음대로 자랑도 못하고 몰래 기뻐합니다.”

순천만보존과 직원들은 요즘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순천만을 찾은 겨울 진객(珍客),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들이 처음으로 2000마리를 넘어섰는데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로 마음껏 자랑할 수 없어서다.

두루미류 새 1000마리를 품는 도시라는 의미의 이른바 ‘천학(千鶴)의 도시’라는 명성 뿐 아니라 국내 유일한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한데는 각별한 철새보호 정책이 한몫을 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지만 조류인플루엔자 탓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게 순천시 분위기다.

◇AI 여파 속 흑두루미 2000마리 넘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23일 현재 2013마리가 관찰됐다.

흑두루미가 2000마리를 넘은 건 꽤 오래됐다.

흑두루미들은 지난해 11월 22일 2134마리가 관찰된 이후 29일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2167마리가 순천만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21일 순천만 인근 농경지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면 폐쇄된 뒤 하루 만에 2000마리를 넘더니 최대 개체수까지 기록하게 된 것이다. 검은목두루미까지 포함하면 29일에만

역대 최대 2176마리 관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미지 높여

순천시 보호정책 한몫... AI 여파에 자랑 못하고 몰래 기뻐해

두루미류로는 역대 최대 개체수인 2176마리가 관찰됐다. 전년도에 견줘 개체 수가 25%가 늘어났다.

첫 관찰(10월 17일) 이후 10월 25일 1000마리를 넘어서는 등 흑두루미 개체수 증가폭이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흑두루미들이 찾았다는 게 순천시 설명이다.

순천만을 월동지로 택한 흑두루미가 2000마리를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국내 유일한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해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일부 흑두루미들의 월동지 및 중간기착지였던 천수만조차 간월호 수위가 높아지면서 잠자리인 모래섬이 잠겨 월동지 기능을 상실, 국내 어디에서도 흑두루미를 관찰할 수 없는 접에서다.

◇새들의 천국...개체 수도 다양해져 =순천만은 겨울을 나는 두루미, 새들의 천국이다.

23일 기준으로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뿐 아니라 검은목두루미 11마리, 캐나다 두루미가 관찰됐다.

국제적 희귀종인 ‘캐나다두루미’는 15종류인 두루미류 가운데 가장 몸집이 작아 무리에 섞여 있을 경우 자칫 새끼 흑두

루미로 오인되는 종류이다. 몸길이가 86~122cm 정도이고, 붉은색 앞이마와 희색 바탕에 매우 긴 목과 다리를 갖고 있는 세계적 희귀조류이다.

두루미류 뿐 아니다.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를 비롯한 기러기류 3200마리, 검은머리갈매기(ㄱ 2급) 등 갈매기류 2000마리,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종 2급), 독수리,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멸종위기종 1급) 등 희귀조류들이 순천만에 머무르고 있다. 오리류는 최대 2만 마리까지 넘게 순천만을 찾고 있다. 이른바 ‘새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각별한 보호·관심 =순천의 서식지 보호 활동은 국내 유일한 흑두루미 월동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흑두루미의 경우 경계심이 심해 작은 불안 요인에도 먹이활동을 하지 못하고 날아오르는 일이 잦다는 게 조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월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개체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월동지에서의 건강상태는 번식지에서의 번식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순천시가 월동 여건 개선에 공을 들

인 게 최대 월동지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순천은 매년 봄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시작한다. 흑두루미가 추수가 끝난 농경지를 돌아다니며 떨어진 낱알을 주워먹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한 해 철새보호활동의 첫 발을 때는 셈이다.

농민들은 흑두루미영농단을 꾸리고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59ha)를 조성, 재배하며 추수가 끝나면 친환경 벼를 흑두루미 쌀로 가공해 연간 50t 가량을 철새 먹이로 제공한다. 흑두루미영농단은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기간에는 채식지로 활용되는 농경지 내 관광객, 차량 출입을 차단하는 한편, 매일 300kg의 벼씨를 농경지에 뿌려준다.

또 순천만 인근의 농민들은 추곡을 수매하고 남은 벼짚을 잘게 썰어 뿌려준다. 순천시는 농민들에게 ha당 45만~50만원의 지원하면서 철새 보호활동을 돕고 있다. 갯벌과 인접한 농경지에 10ha 가량의 무논을 조성, 두루미류를 포함한 오리류, 기러기류의 휴식지 기능을 제공하고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를 제작하기 위한 갈대제거사업도 벌인다.

이승희 순천시 순천만보존과 주무관은 “안전적 서식환경을 조성, 국내 유일한 흑두루미 월동지로 순천만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몸조심 행보

순천시 오해 소지 있는 한평정원 페스티벌 4월 개최 않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몸조심 행보에 나서고 있다. 행사 시기를 조정하는데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결정하는 등 관련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하지 말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순천만정원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 기간 중 ‘제 5회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9월에 열기로 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봄꽃축제 때 다양한 정원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원 산업다자언론’이 열리는 만큼 정원 문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한

평정원 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포기해야 했다.

선관위는 시민들이 몰리는 행사를 예정과 달리 앞당기게 될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가을에 열린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꽃과 나무를 가꾸는 정원을 도심 문화로, 정원 산업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또 지난해 8월말 열렸던 ‘순천만 국제요양악축제’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올해 개최 시기를 앞당기려다 없던 일로 했다. 지난 한 해 치러진 27개 축제 중 가을에만 11개가 집중되는데다, 효율성 등을 고려했지만 지방선거 시기 등을 감안했다는 게 순천시 설명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 사계절 축제 일정 확정



지난해 열린 순천만정원 봄꽃축제 장면.

〈순천시 제공〉

봄꽃축제 4월 6일

물빛축제 7월 20일

갈대예술축제 9월 21일

겨울 별빛축제 12월 21일

순천만정원을 사계절 즐기려면 ~.

순천시가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계절 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관광객 유치를 나섰다. 60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을 도심으로 유도, 5000억원이 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게 순천시 목표다. 전년도에는 사계절 축제 등 순천만정원에서 열린 축제로 411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여는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사계절 축제를 시작한다.

봄꽃축제 기간에는 정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원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행사인 ‘대한민국 정원산업다자언론’이 열린다.

여름 축제인 물빛축제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펼쳐진다. 워터라이트쇼와 DJ힙합페스티벌 등 젊은층을 위한 행사도 준비된다.

가을은 순천만과 어우러지는 정원갈대예술축제를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고 관광객을 맞는다.

겨울 별빛축제는 오는 12월 21일부터 시작 산타&스노우쇼, 3D파사드 등을 선보이며 이듬해 2월 6일까지 이어진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책과 놀아볼까

‘기적의도서관’ 참가자 모집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책과 노는 기회가 생겼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기적의도서관

관은 오는 2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도서관에서 하룻밤자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도서관에서 하룻밤자기’는 퇴근한 아빠·엄마와 자녀들이 책향기 가득한 도서

관에서 책과 연관된 놀이를 하며 하룻밤을 도서관에 머무르는 이색 체험이다. 책과 가까워지고 보다 친근한 도서관의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고자 일 년에 두 차례 운영된다.

이번 행사 때는 가족공동체놀이, 그림책 ‘사탕괴물’을 쓴 작가와의 만남, 영화감

상, 도서관 야간탐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으로 25가족을 모집한다. 문의는 기적의도서관(061-749-8890)으로 하면 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